

한솔그룹, 인쇄업 진출

대영인쇄 40억에 인수 ... 인쇄업계 강력 항의



한솔그룹의 인쇄업진출과 관련, 홍우동 인협회장, 이충원 인쇄연합회장, 조정석 서울조합이사장은 지난 5월 19일 긴급회동을 갖고 5월 26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기로 하는 등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한솔그룹이 계열사인 한솔텔레콤을 통해 종이로 박스 등을 만드는 패키징 사업에 진출한다.

한솔그룹은 지난 5월 15일 한솔텔레콤이 중소인쇄 업체인 대영인쇄사의 포장사업 및 관련 자산을 40억원에 인수하는 영업양수도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한솔텔레콤은 사명을 6월 중에 '한솔피앤에스(PNS)'로 변경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인쇄업계는 한솔제지의 인쇄업 진출에 강력 반대하고 향후 대책마련에 나섰다.

서울 성수동에 있는 대영인쇄는 자본금 11억4200만 원으로 존슨앤드존슨에 화장품 박스 등을 공급해 왔으며 지난해 9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한솔이 패키징 사업에 진출하는 이유는 주력 사업인 제지를 기반으로 종이를 이용해 제품 포장박스를 만드는 사업을 통해 제지, 포장, 유통 등 제지산업의 수직 계열화를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앞서 한솔은 지난해 8월 서울지류유통의 지분 37.55%를 확보해 경영권을 인수, 종이 유통사업에도 진출했다.

한솔 관계자는 “종이상자, 플라스틱 소재의 봉지와 용기, 신규 소재 개발 등 포장재 사업은 물론 포장 디자인, 물류 서비스 등 포장 관련 서비스와 컨설팅까지 제공하는 토털 서비스를 통해 경쟁사와 차별화할 계획”이

라고 설명했다.

유화석 한솔텔레콤 대표는 “그룹의 솔루션사업군 계열인 한솔텔레콤이 그간 IT(정보기술)분야에서 축적해 온 솔루션과 서비스를 패키징 사업에 접목시킬 것”이라며 “한솔제지, 한솔CSN 등 관련 계열사와 시너지 전략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솔은 패키징 사업에서 내년에 200억원 규모의 매출을 올리고 향후 추가 투자를 통해 2015년까지 한솔피앤에스를 5000억원 대의 기업으로 키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이충원)는 5월 16일 중소기업총회를 통해 중소기업청에 한솔그룹의 인쇄업 진출 저지를 위한 사업조정 신청을 하는 한편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한솔그룹의 인쇄업 진출 소식이 알려진 지난해 인쇄단체장들이 한솔제지를 방문, 인쇄업 진출반대 의견을 전달하자 한솔제지의 경영진은 인쇄업계의 의견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협력업체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인쇄단체에서는 8개사를 추천한 바 있는데, 갑자기 한솔그룹이 텔레콤을 이용해 대영인쇄를 인수키로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한솔그룹이 인쇄업 진출을 철회하지 않으면 한솔제지 종이 불매운동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성명서

전국의 70만 인세인들은 생존권 수호차원에서 한솔그룹의 인세업 진출을 강력히 반대한다. 전국 인세업체의 연간 매출액은 3조 5천억원 수준이다. 그런데 한솔그룹이 이번 인세업체 인수를 통해 2015년까지 5천억 원의 매출을 달성한다는 계획대로라면 연간 총 인세물량의 14% 이상을 흡수해 간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되면 물량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만8천여 인세업체들은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인세업은 전형적인 중소기업형 업종으로 영세업체가 대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이 진출하여 연간 물량의 14% 이상을 빼앗아 간다면 70만 인세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것은 물론 수많은 업체가 도산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한솔제지는 2007년 10월 인세업계 대표들과의 면담에서 인세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인세업 진출 대신 협력업체를 구성할 것이라며 업체 추천을 요청한 바 있고 인세단체에서는 이를 믿고 8개 업체를 추천한 바 있다. 그런데 갑자기 인세업체를 인수하여 인세업에 진출하는 것은 정보만 취득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부도덕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그동안 인세업계는 한솔제지의 종이를 사용하며 한솔그룹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반자라 할 수 있는 인세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대량 도산의 위기로 몰아넣는 것은 대기업의 횡포이며 비난받아 마땅하다.

타 업종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상생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가 하면 대기업이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도 이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한솔그룹의 인세업 진출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존'이라는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처사다. 이에 전국의 70만 인세인들은 한솔그룹이 인세업 진출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다 음

- 한솔제지의 종이를 일절 사용하지 않는다.
- 한솔그룹의 상품 구매를 일절 하지 않는다.
- 법적·제도적 대응에 나선다.
- 정부와 국회, 언론기관 등에 한솔그룹의 부도덕성을 적극 알린다.

2008년 5월 19일

대한인세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이충원
서울특별시인세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조정석
대구·경북인세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박희준
경기도인세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완표
충청북도인세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서동욱
전라북도인세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함 청
울산·경남인세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철안

대한인세문화협회 회장 홍우동
부산시인세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노길용
인천광역시인세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심응선
강원도인세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정호강
대전·충남인세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구자빈
광주·전남인세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수만
제주도인세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강규진